

페이지온



인공지능 적용한 개인 맞춤 콘텐츠 제공

페이지온(대표 장세영, www.pageon.kr)은 서울대 벤처동아리와 전기공학부 출신이 주축이 돼 지난 2005년 5월에 설립된 인공지능 에이전트 전문업체로 음성인식·자연어처리·추론엔진을 사용하여 인간과 대화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해 온 IT벤처다. 현재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인공지능을 적용한 UCC(사용자제작콘텐츠) 동영상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페이지온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 맥스피디(www.maxpd.com)에서 아이봇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개인화된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 아이봇은 사용자가 동영상에 조회한 내역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사용자가 평소에 즐겨보는 동영상의 취향을 파악해낸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맞는 동영상을 안내, 보다 적합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페이지온은 아이봇을 UCC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개발하고 있다. 회사측은 쇼핑몰 사이트에서 상품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및 홈네트워킹에서 사용자를 안내하는 통합적인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술로 활용될 수 있어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소개했다.

한울로보틱스



인공지능형 로봇개발 선두주자

대덕 R&D특구에 위치한 지능형 로봇 전문 벤처기업인 한울로보틱스(대표 김병수, www.usdkey.co.kr)는 세계 최초로 스스로 위치를 인식하며 작업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청소로봇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오토로(OTTORO) 로이름 붙여진 이가정용 로봇은 2개의 카메라와 30개의 센서를 이용해 자기 위치를 인식, 비독판식 정밀 작업이 가능하다. 4년 동안 20여명의 연구 인력과 약 60억 원을 투입, 오토로를 개발했다. 관련 기술에 대해 2건의 특허를 등록했고 9건을 특허출원 중이다. 앞으로 10여건의 관련 기술을 국내외에 추가로 출원할 예정이다. 한울로보틱스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10여년간의 이동로봇 개발경험을 토대로 국내 지능형 이동로봇을 만들기 위해 지난 1998년 설립된 회사다. 회사는 동가식 이동로봇, 축구로봇, 교육용 로봇을 자체 개발 판매해 국내에서 유일한 이동로봇 전문 회사로 성장해 왔다. 향후에는 차세대 가정용 서비스 로봇(홀로봇, 토이로봇, 감성로봇) 분야, 비제조업용 서비스 로봇(경비, 안내, 홍보) 분야, 국방용 로봇 분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시터스



인공지능 탑재한 내비게이션 출시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인 시터스(대표 이준표, www.citus.co.kr)는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인텔리전트 루센 R2'를 출시하며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텔리전트 루센 R2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내비게이션 엔진을 탑재해 운전자가 좋아하는 길과 자주 검색하는 성향을 기억하고 학습하여, 운전자가 가장 선호하는 길 안내를 제공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삼성건설에서 10여년간 개발자로 근무해온 이준표 대표는 지난 2000년 지리정보시스템(GIS) 전문업체인 지오엔스페이스를 전신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이후 2004년 시명을 시터스로 바꾸면서 맵SW 업체로 탈바꿈했다. 시터스는 국내 맵 업체로는 아예적으로 수출형 기업 을 지향한다. 최근 중국 텡허내비게이션통신기술유한공사와 태명전자유한공사의 내비게이션에 '루센'을 공급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는 호주와 대만에서도 고정적인 수출실적이 발생하고 있다. 이 회사의 R&D센터가 베트남에 전진 배치돼있는 것도 시터스의 수출지향적인 마케팅 전략을 대변한다. 시터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70억 원, 올해는 200억 원이 목표다.

HCI랩

인간의 말과 유사한 음성합성 제공



HCI랩(대표 권철중 www.hcilab.co.kr)은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지난 10여년간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분야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된 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 2001년 8월에 분사하여

음성, 언어(번역), 영상(얼굴인식) 등 HCI 핵심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스피치와 언어, 그리고 시각 분야의 미래 지향적 핵심기술 개발과 단말기·서버시스템용 응용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휴대폰이나 PDA 등의 휴대 단말을 위한 내장형 솔루션부터, 네트워크 로봇과 보이스 포털 등의 대용량 서버 솔루션까지 총망라한다. 특히 이 회사의 주력기술 중 하나는 음성합성이다. 이는 텍스트 데이터를 컴퓨터로 입력받아 문법구조를 파악하고 끊어 읽기, 운율정보 등을 포함시켜 실제 사람이 발성하듯 읽어 주는 첨단 기술이다. HCI랩은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분야의 음성DB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교한 언어처리 기술로 사람의 말과 거의 유사한 자연스러운 합성음을 제공한다. 특히 HCI랩은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중국어·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의 합성기를 보유하고 있다.

테라스테크놀로지

인공지능 이용한 스팸메일방지 개발



테라스테크놀로지(대표여진선, www.terracetech.com)는 초기 국내인터넷산업을 주도했던 데이콤과 천리안의 개발자들이 2000년 6월에 창업한 벤처기업이다. 이 회사는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엔진을 이용해 스팸메일방지 솔루션 '메일외쳐'를 개발했다. 기존에 파악된 스팸메일 뿐만 아니라 신종 스팸메일도 스스로 판단해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하드웨어(HW) 일체형 솔루션이다. 또 자체 개발한 이미지 스팸 탐지 엔진을 이용해 이미지 스팸메일을 차단하고 실시간 스팸 메일 탐지 필터를 적용해 전 세계의 스팸메일 및 바이러스 메일을 발생 후 조기에 탐지, 차단한다. 메일외쳐는 스팸메일 및 바이러스 메일만을 차단하는 기능에서 지속적으로 확장, 메일을 통한 회사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을 감시 및 차단하는 기능도 적용하는 등 통합 이메일 보안솔루션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다. 현재 국내 유명 ISP, 포털, 뿐만 아니라 대기업, 대학교에서 서부터 SMB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 군을 확보하여 국내에서 약 5천만 메일 계정을 지원하고 한 달에 80억 통의 메일을 처리하고 있다.

기술천국 ETRI

게임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에 성공



ETRI(원장 최문기 www.etirekr) 디지털콘텐츠연구단에서는 게임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ETRI는 지난 7월 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들이 게임상황에 맞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임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현재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 중 하나인 프리스타일에 적용돼 대규모 패치를 실시했다. 게임 인공지능 기술 개발로 게임 사용자들은 캐릭터에 지능을 심어 혼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으며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제공과 특정층의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외국에서 인 하우스 SW 기업들이 자체 개발해 외부 공개없이 자사내에서만 사용하는 SW 형식으로 운영돼 오던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국산 게임 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게임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프리스타일은 제이씨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것으로, 길거리농구를 모티브로 한 스포츠 캐주얼 게임의 대표게임이다. ETRI는 향후 시뮬레이션과 인공지능 핵심기술이 온라인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경쟁력의 관건인 만큼 기획자가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